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성인경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개구쟁이들 사이에서 '딱지치기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겉으로는 아무 염려도 없고 신사숙녀인체 하는 어른들은 월말에 막을 카드 빚 걱정으로 고민하고, 청운의 꿈을 꾸며 불가능이 없어보이는 청년들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당신과 같이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라브리(L'Abri)를 찾아 와서 밤을 지새우며 나누었던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세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청년들의 큰 고민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를테면 1)'나는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고, 2)'나는 누구랑 같이 살 것인가' 하는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고민이며, 3)'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입니다.

그 밖에도 나라 걱정을 한다던가, 한국교회 걱정을 한다던가, 세계 평화를 걱정 한다던가 하는 "작은 고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상의 세 가지 "큰 고민들"에 대해 단편적인 대답을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저의 [대답은 있다](예영)나 [나의 세계관 뒤집기](홍성사)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공과 진로와 관계된 고민입니다.

학벌사회가 만들어내는 첫 번째 희생자들은 대학생들이고 그 다음은 사회 초년생 청년들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에는 당신처럼 원치 않는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성과 비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대학생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학교의 학과인데도 "졸업장을 얻기 위해 죽을 맛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공부와 학교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선배들 중에는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의 일이 대학 때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따라 간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졸업 후 5년 안에 몇 차례씩이나 직장을 전전공공하는 선배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황금 같은 청춘을 몇 년이나 투자한 전공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졸업 후에 직장 생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활을 해 보지도 않고 결혼을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더라도 공부한 것을 거의 살리지 못하고 썩혀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소르망이 “세계적인 여성 사상가들이 몇 세기 동안이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산업사회 이후로 한 평생을 한 분야에 투자한 여성들이 없기 때문이다”는 말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낙담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와 일을 소신껏 하십시오. 우리는 옆 사람과 비교하느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수잔 맥컬리(Susan S. Macaulay)가 잘 지적했듯이 "내가 올라가야 할 사다리는 안 올라가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사다리만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만약 지금의 공부나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제라도 한 가지 이상 남다른 실력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는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말하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어떤 분야든지 전문 지식이 없으면 취직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준비되지 않고 실력도 없이 무거운 책임을 맡으면 엄청난 정력과 시간 낭비를 감수해야 합니다.

공부하고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헛수고가 아니라 보상이 따르는 수고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고린도전서15:58) 그리고 장래의 진로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직(聖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요셉처럼 그것이 가정 비서이든지, 감방 서기이든지, 국무총리이든지(창세기39:1-41; 45) 남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가 선한 사업들입니다.(디모데전서6:17-19)

제발 선교적인 일이나 신앙적인 일만을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선교적이고 신앙적으로 하면 됩니다. 텐트를 만들든지 농사를 짓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제 부탁은 죄가 많아 보이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 내공과 한 분야 이상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성교제와 성적 욕구의 고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미혼자는 사람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병이 날 수 있어도 독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미혼자입니까 아니면 독신자입니까?

제가 말하는 '미혼자(未婚者)'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독신자(獨身者)'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의사를 버리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독신은 미혼과 무엇이 다른니까? 바울 사도에 의하면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고린도전서7:7),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며(7:9), 세상의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고 때를 아끼는 것이며(7:26-31), 주님과 배우자 사이에서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 사는 것(7:35)이라 했습니다. 독신은 성령의 은사이고 고결한 삶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독신이 '가장 인기가 없는 은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독신	미혼	결혼
7:7	결혼 포기	결혼 의사 유지	결혼을 누림
7:9	성적 욕망 자제	성적 만족 추구	성적 만족 성취
7:26-31	시간 소모를 불용	시간 소모 각오	자기 시간이 없음
7:35	마음 분산을 못 참음	마음분산 각오	마음이 산산조각

반대로 미혼자는 결혼 의지가 분명하고, 성적 만족을 원하며, 시간 희생을 감수하고, 마음 분산을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미혼자에 속합니다. 당신도 아마 여기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귀는 사람이 없다면 나 홀로 섹스나 동성애, 혹은 기타 어떤 유형의 섹스로부터 당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청년들은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명한 존 스토틀(J. Stott) 목사는 두 번의 연애 실패 후에 독신을 결정했는데 그 때가 스무 다섯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독신자가 되지 말고 젊을 때 결정해야 합니다. 영문학자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는 독신을 과기하고 쉰 일곱 살에 조이 그래샴이란 병들고 두 아이가 있는 이혼녀와 결혼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혼이나 독신 생활은 결코 '미완의 인생(未完의 人生)'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미혼이나 독신을 '뭔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거나, 현대 신학(K. Barth)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는 독신자였고, 루이스도 오랫동안 미혼자였으나 그것이 불완전하거나 미완의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미혼자나 독신자는 좋은 이성 친구들을 폭넓게 사귀기시 바랍니다. 독신자나 미혼자나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좋은 이성 친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혼자는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이고 순결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받은 상처나 이별의 아픔이 다음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사귀실 때는 동성간이나 이성간이나 지나친 피부접촉이나 혼전섹스는 금해야 합니다. 성경은 접촉의 '최저한계선'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마태복음5:28)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잘못된 성문화를 두 가지 수정하셨습니다. 1)여자뿐만 아니라 남자가 성적 문제의 원인이 되기 쉽다는 사실이며, 2)간음은 육체적 범죄 이전에 윤리적 범죄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서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며 평생 사귄 친구처럼, 형제처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청년들은 서로 간에 그리움과 사랑이 날마다 더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실감 없는 영적 생활에 대한 고민입니다.

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의 관찰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성은 다분히 혼합주의적이다”고 합니다. 그 분은 “우리 조상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란 것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다신론적(多神論的)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유교적인 사회생활의 규범을 가지고 있지만, 명상과

사색은 불교적으로 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원시종교, 곧 샤머니즘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종교 생활의 폐단이 우리 민족 특유의 조화주의 사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이 메마른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1)다신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기초 위예다가, 2)불경건한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3)끊임없는 의심의 파도타기를 즐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그러고 있을 때의 영적 상태는, 아마도 1)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거나, 2)종교적 모양과 형식으로 꾸민다든지, 3)예수 믿는 친구들과의 교제가 불편해지거나, 4)기도와 성경 읽기가 힘들어지고, 5)온갖 의심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 등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위기입니다. 자신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민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비록 역사의식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위기는 억지로 덮어버리고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고뇌하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맞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영적 위기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오늘날 청년들의 주된 영적 위기의 원인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감정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2)세계관적인 혼돈에 빠졌기 때문에, 3)도덕적인 죄악에 물들기 때문에 생깁니다. 만약 이런 원인들이 아니라면 특별 상담을 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결해야 되겠지만, 실감 있는 영적 생활은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는 정직함이 필요하고, 그 후에는 뼈를 깎는 뉘우침과 회개와 함께 거짓된 삶의 굴레에서 과감히 벗어날 때에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노예로, 죄악의 노예로, 옛 사람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사도행전2:37-42; 에베소서 4:22-24)

그리고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테이트를 하든지, 컴퓨터 앞에 앉았든지 영화관에 앉았든지, 족구를 하든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든지, 당신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영적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로마서8:9-17) 우리는 물리적 세계 속에서만 호흡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짓는 것 외에는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주안에서 영적이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즉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고린도전서6:9-20,10:23-33; 디모데전서4:1-10) 특히 기도와 성경 묵상,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 봉사를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젊음은 고민의 크기만큼 성숙합니다.

갈수록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진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옛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사상(new idea)’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진리에 대한 ‘불타는 열정(burning passion)’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세대가 '나르시시즘(narcissism)', 즉 자기만족과 도취에 빠져서 자기만 사랑하는 병(auto-love)에 걸린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면 '시니시즘(cynicism)', 즉 모든 권위와 제도를 비웃고 차갑게 대하는 냉소주의라는 병에 걸린 탓일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질병이요 영적인 무덤입니다.(디모데후서3:1-4)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고민은 당신만의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에 고민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당신의 고뇌도 무한한 자유와 진정한 진리를 향한 활짝 열린 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당신은 고민하는 것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고민은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져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당신의 특권입니다. 당신의 고뇌를 도와 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당신도 많은 사람들처럼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을수록 고뇌하는 것이 점점 더 싫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뇌가 있더라도 하루 빨리 덮어버리거나 스스로 쉬운 대답에 만족하고 주저 앉아버릴 것입니다. 그 때부터는 정직한 질문도 하기 힘들고 정직한 대답도 듣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고민하기 싫다고 고뇌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뜬눈으로 지새우는 밤이 잦아지고 괴로움과 싸우는 시간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뇌하는 당신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미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신의 문제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이 자기 먼저 자신에게 정직해지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자기 문제에 대해 정직해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강제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뇌는 생각을 많이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증폭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주위에 있는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나는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한때는 당신이 지금 겪은 사망의 깊은 계곡을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문제에 정면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의 이야기와 주변 이야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고민, 당신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문제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까지 고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리고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고뇌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서야 풀어집니다.

바보처럼, 졸장부처럼 문제를 도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욥기38:3)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할 차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게 꼬이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바른 대답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정직자(正直者)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욥기23:7)

여기에 예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모든 고뇌하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안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